

4월11일(월)/갈 2:1~10

제목: 결단과 공손을 함께 갖추시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거기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소멸시키고자하였다(4절). 이런 분위기 가운데 바울은 14년 동안 이방인 사역을 마친 뒤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공식적으로 선교보고를 하였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설명했다(1~3절). 당시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새로운 것은 제시해주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 같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공인하였다(6~7절). 또 바울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로 알려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선교보고를 하였고 마침내 그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9절). 그때부터 그는 이방인 사역자로서 한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무례한 사람은 아니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이 정당하지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는 찾아가서 정중히 상의하였다. 그는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도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반드시 교회의 절차와 관례를 따라야 한다. 결단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손함도 갖추어야 한다.

4월12일(화)/갈 2:11~21

제목: 자기 업적을 드러내는 크리스찬

게바와 바나바는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술머시 도망친 사실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바울이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였다(11~14절). 여기서 바울은 다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가르친다.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기질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다(16절).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함이다. 만일 그가 전에 헛어버린 율법을 다시 세운다면 그는 스스로 법을 어긴 사람이 된다(18절).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부터 자기가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했다(20절). 만일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일이었다(21절).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도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거둔 사람은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유혹이 있다. 자기가 이런 업적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든지, 또는 자기의 공로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다.

4월13일(수)/갈 3:1~14

제목: 오직 믿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잃어버릴 위험에 놓였다(1절). 이에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며 질타했다(3절). 그들에게 많은 기적이 나타났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인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된 결과인가를 물었다(5절). 결국은 믿음이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6절).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 오히려 율법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다(10절). 왜냐하면 사람은 100%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율법의 결과는 저주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자기가 대신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13절).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적용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시고 그들이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셨다(14절). 세계의 모든 종교는 다 행위 구원을 주장한다. 말하자면 율법의 요구를 100% 달성해보려고 노력하고 수양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4월14일(목)/갈 3:15~22

제목: 율법이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 설명한다. 세상 관례에도 사람이 일단 계약을 맺으면 그것을 무효화 할 수 없다(15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을 때 ‘네 후손에게’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 한 사람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킨다(16절). 하나님은 430년 전에 이미 예수님에 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고 해서 무효화 될 수 없다(17절). 우리가 장차 받을 하늘나라의 축복은 율법에 의존하지 않는다(18절).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19절). 만일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셨을 것이다(21절).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으로 약속된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친다(22절).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도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대해 확신을 못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 죄가 너무 많아 부끄럽다는 것이다. 현재 믿음만 있으면 그의 죄 많은 과거는 무(無)가 된다. 율법은 그가 죄가 많은 사람이란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것 뿐이었다.

4월15일(금)/갈 3:23~29

제목: 믿으면 국적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 안에 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권과 지위에 대하여 설명한다.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사람은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그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다고 하였다(23절).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가정교사 역할을 하였다(24절). 그런데 그는 그 믿음이 이제 왔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고 하였다(25절).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26절). 그들은 모두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을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27절).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구분이 없으며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다 한 형제들이다(28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라고 하였다(29절).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율법에 현혹되면 안 되었다. 율법에 속으면 그들이 받은 특권과 지위를 잃게 된다.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비록 한국인이라도 그 약속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약속을 믿으면 한국인과 중동인이 한 가족이 된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